2019년 가을호

제96호 2019년 9월 30일
서울대 기독선교회 소식지

진리는 나의 빛

창간 1994년

♥ 올해의 말씀 ♥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시23:1)

발행인 · 박형대 / **편집인** · 이경건 / **학생기자** · 이은혜 / **발행처** · 서울시 관악구 서림7길 대학촌교회 / **TEL** · 888-9111 / **FAX** · 888-9112

개강예배

서울대기독인연합 개강예배가 9월 30일 월요일 저녁 5시반에 서울대학교 문화관 중강당에서 열린다. 이번 종강예배는 아이자야 씩스티원(Isaiah 6tyOne)을 초청하여 찬양시간을 가지며, 말씀은 이용규 선교사님께서 전해주실 예정이다. 예배 후에는 예술계 식당에서 단대별로 식사하며 교제하는 시간을 가진다. 또한 개강예배 후 이틀(10/1,2) 동안 28동에서 말씀 사경회가 열릴 예정이다.

주요 기사 안내

1면	교수칼럼 … 김기선 교수
2면	신입생의 글 … 김민지, 원재희
3면	졸업생의 글 … 김반석, 곽인모
4-5면	19-1학기 종강예배 특별기사
6면	ECU 수련회 … 최성호 JOY 수양회 … 익명
7면	코람데오 소개글 … 정혜인 네비게이토 소개글 … 박태준
8면	2019-1 이모저모

교수칼럼

감사하는 생활

아버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가훈은 데살로니가전서 5:16-18이다. 성경에서 비교적 짧은 구절이라 누구나 쉽게 기억하는 구절이기도 하다.

16절의 기쁨에 대해서 사도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말고도 빌립보서 4:4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강조하고 있다. 17절의 기도는 곧 주님과의 대화이다. 바울은 우리에게 매일 매시간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했다. 기도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행동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른 아침부터 기도로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고, 주님이 하라는 내용을 지시받아 하루를 시작한다면 하루가 더없이 보람될 것이다.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이다. 여기서 세 가지 즉, 기쁨, 기도, 그리고 감사의 관계를 빌립보서 4:6-7에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함으로 기도를 하면 우리에게 기쁨(평강)이 오게 된다는 것이다.

불행 중의 감사는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친다. 온누리교회의 고 하용조 목사의 일화에서도 이를 볼 수 있다. 하목사는 오랫동안 암으로 고생을 많이 해 오다가 드디어 암 수술을 받게 되어서 큰 기대 속에 마취에 들어갔다고 한다. 깨어보니 상황이 너무 안 좋아 수술을 하지 못했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는 큰 절망감이 들었지만, 이내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고 한다. 내가 아는 한 장로님도 아내가 와병 중인데도 그 상황에서 감사할 내용을 10가지나 찾아내 교인들과 나누었다고 한다. 이에 교인들이 크게 은혜받았을 것은 당연하다.

우리 민족은 감사할 줄을 잘 모르고, 욕심이 너무 과다하다고들 한다. 급한 성격도 결국 욕심이 많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 민족의 기원에 대한 한 지리학자의 설이 있다. 대개 모든 민족이 중동에서 발원하여 동진을 계속하면서 이동하다 대부분 다 여기저기 눌러 정착하게 되었는데, 우리 민족은 그 어디도 만족스럽지 않아 끝까지 오다가 결국 바다를 만나서는 할 수 없이 주저앉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늘 만족을 못 하고 산다는 것이다. 학벌을 위조하기도 하고, 30평이면 꽤 넓은 아파트인데도 40평, 50평 아파트를 아쉬워하고, 운전을 해도 앞차의 속도에 만족을 못하고 답답해하다가 결국 추월을 해야만 직성이 풀린다. 자동차도 자꾸 주위 사람들의 차와 비교하여 비싸고 외국제인 차를 사는 경향이 있다. 지고는 못 사는 것이다. 이러한 풍조는 젊은 세대일수록 더 심하다고 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감사치 않은 자들의 최후를 우리는 출애굽 후의 이스라엘 백성에서 쉽게 볼 수 있다. 불평 때문에 40년을 늦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사사기 시대의 불평과 불순종, 그리고 우상 숭배는 이방인들에 의한 고통으로 이어졌다. 다행히 회개하여 돌아오면 사사가 출현해 전쟁에서 이기고 다시 평안을 회복하였다. 하지만 다시 죄악에 빠지면 고통이 오고, 다시 순종하면 평안이 오는 반복이 계속되었다.

잠언 17:13에 보면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라고 하였다. 우리에게 선을 행한 이들에 대하여 우리는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한다. 우리의 친구건, 이웃이건, 우리의 이웃 국가건 우리는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한다. 예부터 사람이 개보다 나은 것은 은혜를 안다는 것이라고 했다. 우리는 은혜를 감사로 갚아야 한다.

감사는 스스로 만족(자족)할 줄 아는 데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안티스테네스는 '현명한 사람은 자족한다.'라고 했다. 스스로 만족할 줄 안다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11-13에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했다. 이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감옥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족과 감사, 능력, 기쁨이라는 단어를 빌립보의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다. 놀라운 일이 아닌가?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자족에 대하여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매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딤전 6:6-10).

구약의 솔로몬, 히스기야, 요아스 등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선한 왕들이었지만 그들이 부하게 되면서 죄악과 우상에 빠지게 되었다. 이것은 동서와 고금을 막론하는 진리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바로 이렇지 않은가? 엊그제 가난과 폭정에서 그리고 전쟁에서 헤어나와 기쁨과 감사가 넘쳤었지만, 기적적으로 경제 대국이 되고부터는 상황이 바뀌고 있지 않은가? 미국도 건국 초기의 청교도 정신이 없어지고 현재 부에 절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다.

우리는 지금의 나부터 범사에 자족할 줄 알고 감사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아니 모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행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맞겠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범사에 넘치게 될 것이다. 전 세계인들의 존경을 받는 일본의 마쓰시다 고노스케의 일화가 유명하다. 그는 늘 '가난한 것, 허약한 것, 그리고 못 배운 것'이 하늘의 은혜라고 감사하게 생각해 왔다고 한다. 우리는 다 그때의 그보다 나은 처지에 있지 않은가? 거기다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있지 않은가?

김기선 교수(원예생명공학)

신입생의 글

신앙생활을 바꾼 한 학기

저는 고등학생 때 나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학교 기도회에 가서 주님께 기도드렸고, 성적부터 학교생활, 입시까지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제가 쓰임받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올해 자유전공 기독인연합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면서, 제 부족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전기연뿐 아니라 선교 단체에서 활동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모습, 매일 묵상하고 기도하며 그 말씀을 전해주시는 모습,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를 응원할 수 있는 모습. 지금껏 제 주변에선 볼 수 없던,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나가시는 분들을 보며, 저도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공부하는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한 학기라는 자전기연과의 짧은 만남을 통해서 세 가지의, 작지만 중요한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저는 이때까지 부모님과 함께 성년부 예배만을 드려왔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교류할 또래나 선후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다니던 교회의 청년부 예배를 추가로 드리기 시작했는데, 이를 통해 제 또래와 믿음 생활을 공유하며 더 성장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또, 지금까진 예배를 드릴 때 따로 필기하지 않고 마음속에 담아두기만 했었는데, 이제는 필기를 남겨 말씀에 접근하는 방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스스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익히며, 매일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께서 읽으시던 책들이 있어서 집에 있던 책을 읽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자전기연 대표이신 영서언니께 묵상 방법을 여쭤보기도 했는데, 열심히 주옥같은 조언을 해주셔서 정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용돈으로 샀던 첫 성경책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성경을 많이 펼쳐보지 않아 깨끗하기만 했는데, 계절학기를 마치고 지금까지 한 달간, 가방에 성경을 넣고 바쁜 시간을 쪼개서 읽은 덕분에 벌써 많이 헤진 것 같습니다. 물론 대충 집어넣고 다녀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이 성경책이 닳아서 새 성경책을 사야할 때가 된다면 제 믿음도 말씀도 더 성장하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모태신앙이긴 하지만 짧고도 긴 20년 동안 제가 능동적으로 믿음 생활을 개선하고 성장하려고 했던 적은 이번이 처음 같습니다. 대학 합격 후 느슨해졌던 믿음을 다시 잡을 수 있도록 자전기연을 만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작은 노력들을 통해 언젠간 저도 누군가에게 믿음의 자극을 줄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김민지(자유전공 19)

신입생의 글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

안녕하세요. 저는 자유전공학부 19학번 원재희입니다. 이번 년도에 입학하자마자 자전기연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선 대학교라는 새로운 환경에 와서 방황하지 않고 시작부터 신앙을 굳게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귀한 모임으로 이끌어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에 가면 신앙적으로 많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이 그대로 교회에 다니는 비율이 매우 적다는 사실, 그리고 선택의 자유의 한도와 폭이 커지는 대신 그만큼 수많은 이단이 대학생들을 유혹하고 마치 진짜인 양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 등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얼른 대학에 가고 싶다는 마음과 동시에 내가 과연 대학에 가서도 신앙을 건강하게 지키고 키워나갈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이 존재했습니다. 그 가운데 제 신앙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쓰면서 그 기도가 적어도 지금까지는 완전히 응답되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사실 고백하자면 올해 들어 정말 하루하루가 절실했던 고등학교 때에 비해서는 성경말씀과 큐티를 꾸준히 열심히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도하면서 고쳐나가고 싶습니다. 마음이 있다고 해서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마음과 행동, 시작과 끝 모두 내가 하려고 하는 것보다 기도가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대학생이 되고 특히 자전기연에 들어와 같이 교회를 다니지는 않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선배들과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 신앙에 표지판 같은 것이 하나 둘씩 생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다른 선교단체에는 들어가보지 않았지만, 단과대기독인연합은 저에게 대학이 반드시 하나님을 믿기에 더 어려운 곳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님의 사람들을 연결하시고 통하게 하셔서 신앙을 성장시키시는 곳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원재희(자유전공 19)

졸업생의 글

막힌 담을 허무는 복음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사회학과 석사를 졸업하고 일본 도쿄에 유학을 온 김반석이라 합니다. 관악에서의 10년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가운데, 마침 진나빛 팀에서 졸업 전 마지막으로 글을 실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제의를 해 주셔서, 이렇게 부족하나마 제가 그동안 캠퍼스에 몸담으면서 고민했던 바들을 글로 쓰게 되었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서울대 기독인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복음 안에서의 연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연합이라는 화두는 제가 지난 10년의 캠퍼스 생활 동안 여러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교제하고 부대끼는 가운데 얻은 가장 큰 선물이자, 숙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교회의 초기 역사를 생생하게 담아내었던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돌아보면서, '연합'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나누어 볼까 합니다.

사도행전은 모두 알고 계시다시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이후,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어떻게 '교회'라는 공동체가 처음 생겨났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이지요. 1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1:8). 그리고 이후의 사도행전의 내용은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교회가 확장되어 가는 이야기로 전개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확장이라는 주제를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 믿는 자들의 숫자가 늘어났다는 사실뿐 아니라, 제자들이 살던 당시에 존재하던 수많은 사회적인 경계를 허물고, 모든 사람들을 아우르는, 새로운 대안 공동체로서 교회가 세워져 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민사상에 젖어 있던 유대인들이 혐오하고 경멸했던 사마리아 사람들과 '외인'으로 취급받던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의 역사가 임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11장에서 처음 등장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일차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지만, 또한 좀처럼 어울릴 수 없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데 어우러져 있는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를 일컫기 위해 생겨난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초대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시대 어떤 사람들도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회적 상상'을 펼쳐 나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되고, 주인과 종이 서로를 '형제'로 받으며(빌레몬과 오네시모), 여성들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주체로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기준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모든 경계를 허무는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을 교회가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복음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족이든, 신분이든, 성별이든, 이념이든, 세상이 설정해 놓은 모든 경계선을 넘어, 복음 안에서 모든 이들이 연합하여 교회 안에서 한 몸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죄인이기에 다름을 마주할 때 불편하기도 하고, 생각의 차이로 다투기도 하지만, 그 모든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신앙고백을 확인하며, 서로 안에 있는 복음의 소망을 발견하면서 하나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명의 교제와 연합은, 세상의 어느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참된 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복음에 깊이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것, 비록 죄로 인해 아무 소망 없는 존재로 전락했지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그 형상을 회복했다는 것, 그리고 성령 안에 한 복음을 고백하는 이들이 교회로 부름 받았으며, 교회를 통해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회복하시리라는 신앙고백과 전망을 분명히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복음의 전망 위에서, 시대의 문화와 가치를 상대화시키고, 복음의 언어로 재해석하며, 이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복음은 유효한 진리임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대기독인연합은 그러한 점에서 일치와 다양성을 경험할 수 있는, 연합을 위한 좋은 훈련의 장이 되어준다고 생각합니다. 서기연에는 다양한 지향점과 신앙의 색깔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때로는 각자의 차이를 직면하고, 심지어 어떤 영역에서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평행선을 확인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미 하나되게 하셨음을 믿고 고백하며, 동일한 소망을 가지고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하는 시간들 가운데 배울 수 있었습니다.

졸업하는 그 순간까지도, 서기연이 여전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캠퍼스 가운데 복음의 영향력을 드러내기 위해 분투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 참 기뻤습니다. 바라건대는 서울대의 모든 기독인들이 각자의 공동체에서, 또한 각자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화평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며, 성령 안에 하나됨을 누리며, 캠퍼스 안에 예수의 향기를 함께 퍼뜨려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지치지 말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함을 바라보며, 성실함으로 우리의 길을 걸어갑시다!

김반석(인류학과 09, 사회학과 석사 졸업)
bansoku1106@gmail.com

졸업생의 글

그 사랑만으로

안녕하세요. 국사학과 11학번 곽인모라고 합니다. 이곳 캠퍼스에 발을 들여놓은 지 어느덧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제야 학부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진나빛〉에 담백한 글 한 편 싣고 싶었는데, 드디어 제게도 기회가 찾아왔네요. 비록 꿈꾸던 것과 같이 번듯한 직장인이 되지 못한 채로 졸업을 맞이하게 되었지만, 오히려 저 자신의 초라함을 나눌 수 있어 그것으로 충분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또 할 수 있을지 자신은 없지만, 솔직하고 담담하게 졸업을 앞둔 소회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 관계를 맺고 여러 일을 마주한 것 같은데, 특별히 주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음을 보여주시고 사랑과 위로를 부족함 없이 허락해주셨던 귀한 공동체 '인문대기독인연합(이하 인기연)'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철없던 1학년 1학기 시절, 인문대에 기독인 공동체가 있으니 한 번 나와보라며 매일같이 쫓아다니던 한 선배가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 저러다 말겠지 하며 건성으로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그 누나는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한 학기 내내 선배는 저를 찾아다녔고, 저는 선배를 피해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던 중 그해 여름 세차게 쏟아진 비로 인해, 건물 지하에 자리 잡고 있던 인기연 동아리방이 침수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일손이 부족하다기에 괜한 의협심에 흔쾌히 달려가 물을 퍼 나르던 저는, 선배들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바라보며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토록 도망 다니던 공동체인데, 한 학기 내내 선배의 변함없는 열정을 사용하신 것도 모자라 어쩌면 동아리방을 침수시켜가면서까지 저를 이 사랑스러운 공동체 안으로 부르고 싶으셨나 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저의 발을 인기연에 묶으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인기연 모임의 자리를 지키며 저의 위치에 대해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웃음꽃을 피우던 선배가 선교단체의 간사가 되고, 대표를 하며 처음 맞이했던 새내기들이 저보다 먼저 졸업을 하는데, 왜 저는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민망한 모습으로 머무르게 하실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참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은 그 민망함 가운데 사랑과 위로를 허락해주셨습니다. 모임의 자리를 지키며 섬김이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후배들의 생기 넘치는 믿음의 나눔 가운데 저 역시 생기를 얻고 또 위로받게 하셨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보기에 취업에 실패하여 졸업을 미루는 초라한 문과생일지 몰라도, 주님이 보시기에는 제가 여전히 인기연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졸업과 그 너머의 삶을 당신께서 책임지실 테니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흘려보냈던 소망과 사랑을 후배들에게 흘려보내라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제가 주의 말씀에 올바르게 순종하여 당신의 사랑을 흘려보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후배들에게 흔히 말하는 꼰대는 아니었는지,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지는 않았는지, 온유함으로 사랑과 위로를 전했는지 솔직히 자신은 없습니다. 다만, 선배들이 그러했고 저 역시 그 모습을 좇으려 노력했던 것처럼, 무척이나 사랑스러운 인기연의 후배들이 신실하신 주의 사랑과 소망과 위로를 이미 생기 있게 흘려보내고 있음을 바라보며 감사한 마음으로 둥지를 떠나볼까 합니다.

만일 주님이 나를 보시며 사랑받을 자격 없다 하셨다면,
만일 주님이 소망 없는 날 긍휼히 보시지 않으셨다면,
나는 어디로 무얼 향해, 나는 어디로 무얼 위해 걸어가고 있을까?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만으로 나 살아가겠네.

좋아하는 찬양의 일부를 나누며 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너무나 길게 느껴졌던 학부 생활을 돌이켜보며, 모든 순간이 주님의 사랑으로 인한 것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만일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보시지 않으셨다면 당신의 사랑을 인함이 아니었다면, 제가 무얼 향해 무얼 위해 걸어가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겉보기에는 초라함밖에 남지 않은 대학생활이지만, 제가 초라할 수 있었기에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의지하고 소망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큰 사랑 받으며 졸업할 수 있어 정말 행복합니다. 졸업 너머의 삶은 여전히 불확실함 투성이지만, 주님의 그 사랑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고자 합니다.

곽인모(국사 11)
dlsah0585@naver.com

19-1 종강예배 특별기사

우리가 드린 예배, 우리가 드릴 예배

「진리는 나의 빛」 편집팀
학생기자 **이은혜** (아동가족 17)
편집인 **이경건** (과학교육 박사과정)

Ⅰ. 들어가며

19년 1학기 서울대 연합 종강예배는 지금까지 드려졌던 개종강예배와는 다른 새로운 형식으로 드려졌다. 첫째로, 강사로서 외국인을 모셨다. 미국 칼빈대학에 재직 중인 제임스 스미스(James K. A. Smith) 교수가 초청되어 강단에 섰다. 둘째로, 메시지가 강연 형식으로 전해졌다. 셋째로, 강연 후에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러한 변화들에 상응하듯이, 해당 종강예배의 참석자 수는 예년에 비하여 높은 편인 약 230여명이었다. 일반적으로 종강예배는 개강예배에 비하여 참석자 수가 적은 편임에도, 1학기 개강예배 참석자 170여명에 비하여 그 수가 상당히 증가하였다는 점에서 예외적인 일이다.

하지만 학내 기독인 사이에서 1학기 종강예배에 대한 엇갈린 시선들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해당 예배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경우가 있었는가 하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경우도 적지 않았다. 여기서 이러한 차이들이 나쁜 것만은 아님에 유의하여야 한다. 캠퍼스에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올바르고 합당한 예배에 대한 각자의 생각이 다양할 수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다양해야하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서울대에서 살아가는 기독인들이 예배에 대하여 가진 생각들이 하나로 모여, 더 나은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일이다.

이에 '진리는 나의 빛'(진나빛) 편집팀에서는 제목과 같이 특집기사를 기획하게 되었다. 서울대학교 캠퍼스에서 우리가 드린 예배를 돌아보고, 앞으로 우리가 드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함이다. 다만 이에 대하여 진나빛 편집팀의 의견보다는 실제로 지금까지 연합 예배를 드렸던 지체들의 의견이 드러나기를 지향하였다. 이에 본 특집기사의 기본 자료를 개종강예배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조사는 지난 8월 2일부터 8월 12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서울대 기독인 학부생, 대학원생, 교수, 간사 등 총 53명이 참여하였다. 설문 결과를 정리하는데 있어서는 서울대기독인연합(서기연) 대의원회의와 연합포럼의 회의록 일부를 참조함으로써 캠퍼스 선교에 앞장서는 섬김이들의 견해를 해석적 틀로 간접 활용하고자 하였다.[1)]

Ⅱ. 설문조사 결과

(1) 서울대 연합 개종강예배 전반에 대한 인식

○ 예배 순서 전반

: 찬양, 말씀 선포 및 메신저, 합심 기도, 기타 순서가 적절했는가에 관한 질문에서, 참여자들은 평균 4.18, 표준편차 0.83으로 '대체로 적절'했다고 응답하였다. 그런가 하면 식사 교제, 예배 시기, 예배 장소에 만족하였는가에 관한 질문에서, 참여자들은 평균 3.33, 표준편차 0.84로 '보통'이라고 응답하였다. 이 두 영역을 합칠 경우에는 평균 4.09, 표준편차 0.83이 된다.

○ 지금까지 가장 만족스럽거나 기억에 남는 예배

: 19-1 개강예배(김회권 목사), 18-2 종강예배(권연경 교수), 16-2 종강예배(유기성 목사) 등 참여자별로 매우 다양한 응답을 보여 이를 요약하기는 어려웠다. 다만 19년 1학기 종강예배라고 응답한 경우가 4건, 새내기 신앙 OT라고 응답한 경우도 2건 있었다.

(2) 19년 1학기 종강예배에 대한 인식

○ 19-1 종강예배 전반에 대한 만족도

: 평균 3.51, 표준편차 1.05로 나타났다. 지금까지의 예배에 대한 질문들에 비하여 평균 점수는 다소 낮으며, 표준편차가 더 크다는 점에서 학내 기독인들이 기존에 비하여 엇갈리는 견해를 지니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 예배에 대하여 기대하였던 점

: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 "소망", "은혜", "기대", "음성" 등의 키워드들이 등장하였다. 그런가 하면 대학이라는 공간의 특수성을 고려하며 지성에도 소홀하지 않은 신앙을 고민할 기회를 얻고 싶었다는 취지의 응답도 있었다.

○ 강연 및 질의응답이라는 형식에 대한 응답

: "새롭다", "신선했다", "좋은 시도였다" 등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들이 많았다. 그 이유는 "학생이 참여"하고 "피드백을 주는" 형식이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다만 성경 말씀을 다함께 봉독하지 않은 점이나, 말 그대로 강연에 가까운 느낌을 주어 "예배답지 않아서" 아쉽다는 의견들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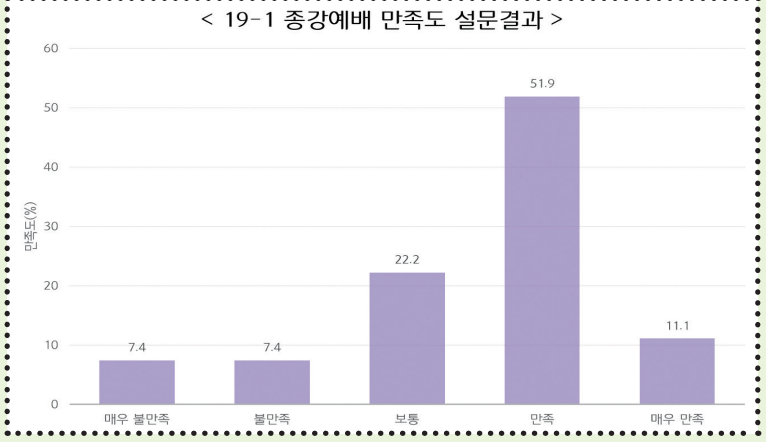
○ 실제 강연 및 질의응답의 내용에 대한 응답

: "좋다"는 의견들도 있었지만, 부족함을 느꼈다는 응답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논의가 어렵고 시간이 충분치 않았다거나, 강사가 한국 및 서울대학교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거나, 문제제기 혹은 질문을 던지는 차원에 머물렀다는 등의 의견이었다.

○ 외국인이 강사로 선 것에 대한 응답

: 강사가 외국인인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새롭고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서울대 캠퍼스를 잘 이해하는 사람이 강사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기되었다.

< 19-1 종강예배 만족도 설문결과 >



(3) 앞으로의 예배에 바라는 점

○ 찬양

: 찬양 시간을 늘리자는 의견이 많았다. 선곡에 있어서는 성경 말씀에 근거한 전통적인 찬송가 비중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는가 하면 대중적인 찬양들("신나는", "즐거운", "기쁜", "시대를 반영")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들도 있었다. 회중들이 따라 부르기 쉽도록 콘티를 미리 공유하거나 국제학생들을 배려한 곡이 늘어나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되었다. 또한 "뜨거운" 찬양과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는 응답들도 있었다.

○ 말씀 선포 및 메신저

: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이 전해지는 본질이 중요시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지금까지 서기연 개종강예배에서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다양한 스펙트럼과 성향의 강사님들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 좋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일각에서는 신학적으로 다소 진보적인 강사가 서는 일에 대하여 불편함을 느낀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가 하면 "캠퍼스", "대학", "실제"적인 적용점을 발견할 수 있는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들도 적지 않게 등장하였다. 이는 서울대학교의 특수성이 반영된 말씀 선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드러난 것으로 생각된다.

○ 합심기도

: "서울대학교" 및 "나라와 민족"을 위해 "뜨겁게", "길게", "많이" 기도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다만 기도제목에 있어서는 선교단체와 단대기연 등 개별 단체의 기도제목을 미리 수합하여 다함께 기도하는 방식을 건의한 경우들도 있었다.

○ 기타 순서

: "잘 준비된 진행(끊김 없이)", "공통의 신앙고백을 확인(사도신경)", "질의응답 시 익명 보장", "(시간 효율을 위해) 헌금을 들어오면서 드리도록", "졸업생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으면 좋겠다", "타 대학 출신 대학원생의 소속감 고려" 등의 의견이 있었다.

1) 서기연 대의원회의는 선교단체 및 단대기연 학생대표와 서기연 중앙위원단이 월 1회 갖는 회의이다. 서기연 연합포럼은 학부생, 대학원생, 교수, 간사, 교직원이 참여하여 격월로 갖는 회의이다.

○ 식사 교제
: 식사 교제에 있어서는 식수 인원의 사전 조사 필요성, 단과대학별 테이블 지정으로 인한 교제의 폭 감소 현상, 메뉴의 다양성 확보(비건 식단 등) 등의 응답이 있었다.

○ 예배 시기
: 개강예배를 학기 1,2주차에 진행하자는 의견, 종강예배 시기를 늦추자는 의견, 개종강예배 요일을 변경하자는 의견 등이 있었다.

○ 예배 장소
: 문화관 중강당이 가장 적절하며 학생회관 라운지도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런가 하면 노천강당 등 지금까지 비교적 적게 활용된 공간들을 언급하는 경우도 있었다.

○ 추가적 의견
: 서기연 연합예배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답변 등이 나왔다.

"개종강예배에서 늘 많은 은혜를 받고 삶의 활력을 얻곤 해왔습니다 :) 준비하시는 중앙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서기연이 한데 모이고, 같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나누는 귀한 자리로 이어져가면 좋겠습니다. 같은 메신저분을 여러번 초청해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개종강예배는 한 학기에 두 번밖에 없지만, 이벤트라기보다는 꾸준히 마음을 모아가는 원동력이 되는 예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연합 개종강예배에 더욱 많은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힘써주시면 좋겠습니다."

III. 나가며

19-2 개강예배는 2012년 이후 처음으로 월-수 3일간의 부흥회를 겸하여 드려진다. 몽골에서 활동하시는 이용규 선교사님을 강사로 초청하고, 아이자야61이라는 외부 찬양팀을 섭외한다. 이처럼 연합 개종강예배에 계속해서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진정한 새로움은 형식과 내용의 변화 이전에 그 자리에 예배자로 서는 서울대 기독인들의 심령에 의존하는 것임을 우선 기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차이들이 근본적인 일치 하에서의 연합을 저해하지 않음을 상기하고 싶다. 나와 다른 의견을 제시한 지체들은 내가 바라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을 더욱 잘 알고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컨대 변화하는 캠퍼스 내외의 환경에 맞추어 개종강예배 또한 새로워져야 한다는 입장이 가능한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근본적인 진리에 터한 예배가 드려져야 한다는 입장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본 기사의 내용이 과거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라거나 미래에 대한 확실한 처방이라는 식으로 절대적 의미에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으면 한다. 설문조사 결과를 정리하면서 모든 응답들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한 한계가 있으며, 이에 대하여 양해를 구한다. 다만 서울대 내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고, 관계 맺으며, 일함으로써 살아가는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가 공유되어 더 나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

≪진리는 나의 빛≫ 독자 기고란

서울대학교 학부생 혹은 학내 구성원 분들의 간증 혹은 신앙에 대한 자유로운 주제의 글 기고를 받습니다.

개인적인 글/기독 단체 소개 및 간증 모두 괜찮습니다.

≪진리는 나의 빛≫을 읽는 분들에게 다시금 신앙의 열정과 용기를 북돋아 줄 독자 분들의 글을 기대합니다.

문의: 이은혜 학생기자(010-2208-3684, leh1288@snu.ac.kr)

〈학생기자모집〉 진나빛 학생기자로 활동하며 경험을 쌓으실 분들은

편집인 이경건(과학교육 박사과정, 010-6888-6108)로 연락해주세요 :)

수양회 간증글

ECU 2주 수련회를 다녀와서

지난학기(2학년 1학기)는 저에게 힘겨운 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시도를 하느라 지치기도 했고, 기대했던 열매 대신 부정적인 결과들을 보며 낙심한 마음으로 종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도하던 모임도 하기 싫고, 복음을 전하려 했던 친구들을 만나기도 싫어서 빨리 수련회로 도피하고 싶었습니다. 1학년 때 여름, 겨울 2주 수련회를 이미 경험했던 저는 이번 수련회에서도 쉼을 누리고, 회복하게 될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저는 수련회 1주차가 끝나기도 전에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이해를 위해 수련회 일정을 적어보자면, 일반적인 평일을 기준으로 기상&체조(30m)〉큐티(1h)〉아침(1h 30m)〉강의/PBS(2h)〉점심(1h)〉휴식(3h)〉GBS나눔/PBS나눔(1h30m)〉저녁(1h30m)〉찬양(30m)〉강해(1h30m)〉기도(1h-1h30m)〉잠(8h). 주말에는 찬양 기도회, 물놀이 등을 하기도 하고, 수련회가 끝나갈 즈음에는 캠퍼스 전략 회의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고, 잘 쉴 수 있을 것 같죠?☺] 쉬는시간이 많다보니 분주한 학기 중에 지친 몸을 많이 쉴 수 있었고, 지난 학기를 차분히 돌아볼 수도 있었습니다. 또 그때 그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감사했던 순간들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부정적인 일에 초점을 두고 낙담해서 제게 허락하신 은혜를 잊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유익 외에도 원투원부터 물놀이까지, 공동체 지체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책에 "세상에서 복음을 위해 힘써 싸우다 와서 함께 수고한 지체들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동안의 수고를 눈물로 씻어낼 때 참된 위로가 임한다"라고 쓰셨는데, 그런 책의 내용이 눈 앞에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수련회가 마냥 위로받기만 하는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들을 때에 지난 학기 제 모습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GBS, PBS 시간 등을 통해 일상과 죄의 문제를 정리한 것도 유익했지만, 다윗과 베드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말씀 강해에서 믿음의 도전에 대해 들었던 것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린 소년이었지만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아가 승리하였고, 어부로서 경험과 반대되는 것이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그물을 내려 수많은 물고기를 낚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볼 때 지난 학기에 나름 믿음의 시도를 해보았다는 것이 자랑스럽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여 자신 있게 나아가기보다 늘 자신 없이 의무감에 도전했던 제 모습이 그들과는 많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늘 도전의 결과에 대해서 불평했지만, 도전하는 제 태도를 제대로 돌아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일단 시도는 하지만 최대한 몸을 사리는 눈가림 식의 도전들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불평하던 제 모습을 반성했습니다.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고난을 통하여 연단하시는 것도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실패하게 하실 수도 있다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민을 하는 저와 지체들에게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은 당신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을 절대 저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골리앗과 맞선 다윗도, 바알 선지자들과 맞서 기도한 엘리야도, 바로 앞에 선 아론도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 인용하신 시편의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시 25:3). 이런 하나님께서 제 삶과 도전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때, 다시 도전할 용기가 생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글 쓰는 걸 정말 어려워해서 처음 진나빛 기고 제안을 받았을 때 많이 망설여졌는데, 수련회 중에 느꼈던 많은 것들 중 일부를 나누고자 작성해보았습니다. 두서 없고, 개인적인 소감이라 특별한 게 없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수련회 시간을 통해 저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조금이나마 전달되면 좋겠습니다. 한편 이 글을 읽는 서기연 지체들은 다음 학기 제 모습들을 지켜보게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여전히 두렵지만, 깨달은 대로 살 수 있도록 저와 동물생명공학과, 농기연, 그리고 ECU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

최성호(동물생명공학 18)

수양회 간증글

2019-여름 JOY 수양회 수기

나의 1학기는 조급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겨울 수양회 이후 무언가 달라졌다고 내 자신에게, 타인에게, 하나님께 증명하고 싶었다 그러나 나의 변화가 얼마나 미묘했는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뿐 누구보다 내가 잘 알고 있었다. 나는 무엇인가 달라졌다고 내 자신을 속이며 살아왔다. 나를 속이는 것은 정말로 잔인한 일이었다. 겉으로는 확신에 찬 것처럼 행동하지만 속으로는 내 내면을 갉아먹는 일이었다. 내 내면이 닳고 있는 과정을 인지하지 않으려 했고 회피하려 했다. 이성으로 내 내면을 억누르는 과정을 더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렀을 때 나는 무너졌다. 내가 감당하고 헤어나올 수 없을 정도의 무기력함에 빠졌다. 다만 이를 드러내지는 않았다. 나는 매일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로 살았다. 겉으로는 나의 모든 것을 퍼주는 '사랑'을 실천했지만, 속으로는 그 어느 누구보다 답답해하고 있었다. 나는 누구보다 연약했지만, 그 연약함을 드러낼 수 없는 겉으로만 강한 사람이었다.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약하고 이렇게 무너진다는 사실에 나 자신에 대한 회의가 나를 덮쳤다. 그렇다. 나는 나 자신을 동정하기보다 나를 원망했다.

내가 무너졌을 때 타인을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은 나를 절망하게 했다. 결국 나는 내 상태가 선행되어야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인가. 나는 Others second를 실천한다고 믿었지만 사실 내게는 내가 우선이었다는 생각은 내가 겉으로나마 잘 살아왔다는 신념마저 깨뜨렸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힘들었지만 버틸 수 있었던 건,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했다고 내 자신을 위로해 왔기 때문이었다. 나는 내가 단순히 지친 것뿐이지, 그래도 이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의 자기중심성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자 내 외면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 금이 커지고 커져서 나라는 사람은 내적으로, 외적으로 무너진 것이다. 신앙적으로도 한계에 봉착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았다. 분명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줄 알았는데, 내 삶에서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고 그분을 찾고 있는데 나는 점점 더 무기력함으로 빠져들었다. 나는 선한 목자를 잃어버린 양처럼 느껴졌다. 이렇게 깨진 상태였기에 수양회가 더 특별한 의미로 다가온 것 같다.

수양회를 통해서 내가 가장 많이 했던 생각은 세가지이다. 먼저 내가 바라고 기도했던 것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었음을 깨달았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삶에 일어날 것이라 기대했던 변화들은 일어날 수는 있지만 일어나야만 하는 변화들은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형통함이 곧 일이 다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은 나의 뒤통수를 강하게 가격했다. 다음으로 내게 진정으로 위로가 되는 것은 말씀밖에 없음을 느꼈다. 힘든 순간들에 다양한 위로를 받았는데, 그 위로들은 나의 마음속 공허함을 채우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그러나 수양회의 말씀들은 나의 마음속의 공허함을 가득 채우고도 남았다. 결국 내게 진정으로 힘이 되는 것은 말씀뿐이었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는 것이 나의 상태를 치유했다. 뒤에서도 언급하겠지만 이것이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나의 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마지막으로 나는 매일 새로워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수양회 시간들 속에서 나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다. 같은 기도 제목이더라도 오늘 나의 기도와 어제 나의 기도는 다르다. 어제 내가 누린 은혜가 오늘도 내가 같은 사람임을 보장하지 않는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원래의 죄된 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매일 복음 안에서 거할 수 있게 기도해야 함을 다시금 느끼는 시간이면서 매일 치열하게 노력해야 되는구나 생각이 들었다. 이제 하루하루 설교를 들으면서 했던 생각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보고자 한다.

먼저 고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내가 이번 학기 가장 많이 했던 고민은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버티기 어려운 상황일 때, 고난이 다 끝나고 한번에 유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유익을 고난의 상황에 조금씩 나눠 주셔서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었다. 미래에 받을 유익이 줄어들더라도 나는 현재를 이겨내는 것이 버거웠기에 이런 고민을 했다. 그러나 내가 너무 힘들어서 제발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가장 없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내 옆에 계셨다.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나는 선한 목자 당신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잠시 눈을 감은 것이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편함을 느끼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불편함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었다. 믿음은 나 혼자 살기에 버거워 도움이 필요함을 인정하는 것이다. 결국 믿음은 고난의 필연성을 인정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이다. 고난 때문에 힘들었던 나의 모습을 지금 생각해보면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힘들었다. '이 정도 고난에는 흔들리지 않아' '나는 강한 사람이야' '하나님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세요' 이런 나에게 수양회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I am not going to make you strong, I will be your strength"

다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방향성을 생각하는 시간이었으며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감탄하는 시간이었다. 어떤 집단이든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나보다 더 빠른 사람이 있고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친구가 있다. 그러나 이 차이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로움은 분배에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공의로운 것이다. 우리에게 2로 5를 이기라고 하신 적이 없다. 다만 2로 2를 남기라고 하셨을 뿐. 나의 역할은 나보다 잘나가는 사람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는 감사의 표현도, 사랑의 표현도 아닌 은사이다. 즉 섬기는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달란트로 나를 쓰실 것이다. 이미 1학기 동안도 나를 사용하셨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흘러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었다.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조차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셨다.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이다. 그렇기에 나는 오늘 내게 주어진 것들로 최선을 다해 섬기겠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깨달음 중 하나인 성숙에 관련된 생각이다. '나는 할 수 있다'는 말이 내 안에 있는 가장 세상적인 말이었다. 나는 신앙생활의 지속이 나를 강하고 더 적게 흔들리게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는 복음의 기초를 간과하고 있었다.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 앞에 매일 무너지고 쓰러진다. 내가 답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라는 복음의 기초를 잊어버리고 생활을 했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뿌리치고 '저는 괜찮아요,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는 '왜 저는 이 만큼 했는데 하나님은 일을 안하시는 거죠?' 라고 따지고 있었다.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해주실 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내가 해야 할 일은 그저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하는 것이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실로 놀라운 분이다. 우리에게 이 땅에서 최후의 승리를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반복된 승리를 허락하셨다. 진짜 성숙은 독립이 아니라 의존이다. 의존하며 이 땅 가운데 반복적인 승리를 경험하는 것. 또 패배를 경험하고 그분께로 돌아가는 것. 우리는 돌아서도 그분은 변치 않으신다. 우린 넘어져도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가야 한다. 신앙의 성숙은 온전히 맡겨 드릴 수 있는 능력이다. 복음을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나의 신실함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는 오늘을 살아간다. 내가 할 수 없다고 소리칠 때 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I know you can't, so I did it for you. I died for you. So would you do it?"

익명 글

모임소개글

코람데오(화학생물공학부 과기독모임)

안녕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공부하고 먹고 관계 맺으며 살아가기를 사모하는 화학생물공학부 기독인 모임 코람데오입니다 :) 저는 19년 1학기 동안 모임의 대표를 맡고 있는 15학번 정혜인이라고 해요. 코람데오는 현택환 교수님이 시작하셔서 지속해온지 20년이 되어가는 동아리로, 신입에서 포닥까지 다양한 형제 자매들이 함께 하고 있어요. 역사가 긴 만큼 신입 때 들어와 대학원생으로 섬기는 자매님, 유학을 갔다가 포닥으로 다시 돌아온 형제님, 윗공대가 어색한 신입생까지 다양한 이야기와 사람들이 존재한답니다.

이렇게 다른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 저희가 믿는 하나님이 같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눌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이 아닐까 해요. 저희는 매주 한 번씩 말씀을 듣고 점심을 먹으며 교제의 시간을 갖는데요, 이 때 코람데오 안의 교수님들과 목사님께서 돌아가며 말씀을 전해주신답니다. 행복 바이러스 신원식 목사님, 말씀과 파이팅이 넘치시는 장정식 교수님, 변함없는 온유와 평강의 소유자 현택환 교수님, 그리고 친근한 겸손함을 지니신 최장욱 교수님의 치열한 삶과 그 가운데 붙드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한주 동안 살아온 저의 모습을 돌아보기도 하고 남은 한 주를 살아갈 힘과 지혜를 얻기도 합니다. 이어서 서너 명씩 모여 이야기하다보면 학부생활, 혹은 그 이후 진로까지 같은 분야에 몸 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나눌 수 있는 고충을 나누고 또 더욱 와닿는 조언도 들을 수 있어요. 아, 그리고 매주 빠질 수 없는 맛있는 점심 메뉴가 덤으로 기다리고 있답니다.

매주 학기 중에 있는 모임뿐만 아니라 매년 봄이 되면 다같이 걸어서 버들골로 내려가 벚꽃놀이를 하곤 합니다. 이렇게 넓고 아름다운 학교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을 맘껏 누리며, 또 다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번 2학기에는 코람인들끼리의 단합을 꾀하고자 벚꽃놀이 대신 가을 소풍으로 모여 각자 준비해온

게임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사람은 많은데 자주 보지 못하다보니 깨기 어려웠던 어색한 기류를 버리고 다함께 즐기는 시간이라 정말 추억에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코람데오는 함께 해온 시간과 있는 사람들만큼 안정된 모임이지만 동시에 큰 변화나 성장이 없는 정체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도 주님 앞에 과연 어떻게 움직이고 활력이 있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지 점점 고민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번 학기에는 302동 엘리베이터마다 홍보지를 게시하기도 하고, 신입생 오티에서 당당히 과동아리로서 공개적으로 소개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런 저희의 믿음의 움직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는 새로 온 대학원생분들과 신입생들을 보내주셨답니다. 적극적인 주님의 제자가 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저희 코람데오는 앞으로도 이 행보를 멈추지 않기를 원해요. 그런 의미에서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있을 수줍은 화생공인, 혹은 다른 모임에 갈 수 있는 윗공대러가 계시다면, 진심으로 이 은혜의 자리에 초청합니다! 저희는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지만 전적으로 이 모임과 그에 따른 저희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함께 와서 보고 듣고 경험하며 나눌 수 있을테니 적극적으로 침노하시길 적극 권하고 싶어요 ☺

앞으로 윗공대를 지나거나 화생공 사람들을 마주치실 때마다 그들이 복음을 깨닫고 누림으로 구원받기를, 저희 코람데오가 주님 앞에서 복의 통로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코람데오였습니다. 새로운 한 학기와 그 이후도 주 안에서 언제나 평강하고 평안하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정혜인(화학생물공학부 15)

모임소개글

네비게이토 선교회 소개글

네비게이토 선교회는 국제적이고 복음적인 기독교 기관으로 전세계 150여개 국가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찌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태복음 28:19-20).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지상사명을 주셨습니다. 네비게이토 선교회는 세계 모든 국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배가시켜 이 지상사명의 성취를 돕는 것을 근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전국 각 대학에서 네비게이토 선교회를 통해 많은 대학생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알게 하는 삶(To know Christ and to make Him Known)'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1966년 한국 네비게이토 사역과 함께 시작된 서울대학교 네비게이토 선교회는 캠퍼스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를 길러내어 지상사명을 이루는 일을 목표로 사역해 오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사역으로 생겨난 제자들을 통해 오늘날 전국 각 캠퍼스와 직장에서도 제자 삼는 사역이 일어나고 있고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누가복음 2:52).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성장하는 면에서도 우리에게 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적(지혜), 신체적(키), 영적(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회적(다른 사람과의 관계)인 면에서 균형 잡힌 성장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서울대학교 네비게이토 선교회는 각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 전인격적으로 성장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갖추어지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편 119:105) 서울대학교 네비게이토 선교회는 각 사람이 성경 말씀을 체계적으로 연구할 뿐 아니라 삶 속에서 실천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성경공부와 암송을 통해 각 사람의 마음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승리의 무기와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기도, 개인교제, 전공공부와 스포츠도 함께 하며 균형 있게 성장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방학 동안 저희 네비게이토 형제자매들은 주님을 배우고 닮아가는 축복된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경공부와 암송, 성경 읽기를 통해 개인적으로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아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또 스포츠 교제도 함께하며 영육이 강건해지며 경건한 교제의 즐거움을 누리는 시간으로 보낼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시작하는 새로운 학기에는 그동안 배운 말씀을 힘써 순종하며 캠퍼스의 귀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즐겁게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박태준(지구환경 14)

2019-1학기 캠퍼스 이모저모

1학기 종강예배

▲ 지난 5월 29일, 종강예배를 섬기는 연합찬양팀

▲ 교수님의 말씀 후 이루어진 질의응답 시간

▲ 기도를 인도하는 유예나 서기연 대표

▲ 합심하여 기도하는 서기연 지체들

▲ 특송으로 섬겨주신 간사님들

▲ 예배 후, 예술계식당에서 진행된 식교제

서기연 방학사역

◀ 방학 중에도 이어진 서기연 아침기도회

◀ 다음학기 사역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던 중앙위원 엠티

전국기연네트워크 수련회에 참여한 서기연 지체들▶